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윤아, 호텔리어 천사랑역 고객만족 서비스 '달달'

(JTBC 드라마 '킹더랜드' 6월 첫 방송)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본명 임윤아)는 초교 6학년 때 SM엔터테인먼트 토요 공개 오디션에서 뽑혀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았다. 당시 왁스의 '부탁해요'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의 리듬에 맞춰 춤을 췄는데 호평 받았다.

이후 약 5년간 연습생 생활 끝에 2007년 8월 소녀시대 싱글 앨범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했다. 이 곡은 10대들의 순수함과 열정, 자신감 등을 느낄 수 있는 밝고 힙한 분위기로 '소녀시대'를 정의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2009년 발매한 2집 'Gee'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단숨에 톱 아이돌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원더걸스와 더불어 가요계 여성 아이돌그룹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며 한류열풍을 선도했다. 이외에도 'Run Devil Run' '훗' '소원을 말해봐' 'Oh! Party' 등 많은 히트곡과 해외 진출



빌딩 서울 강남구 청담동 21-12

로 K팝 열풍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2017년 8월 정규 6집 'Holiday Night(홀리데이 나이트)' 활동을 마친 뒤 티파니, 수영, 서현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면서 완전체 활동에 중단했다. 이후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 팬들을 안심시켰다. 멤버들은 이때부터 각자의 매력을 살린 솔로 활동에 전념했다.

윤아는 2018년 9월 태연, 써니, 효연, 유리와 함께 새 5인조 유닛 '소녀시

대-Oh!GG'로 활동을 시작했다. Oh!GG는 감탄사 Oh!와 소녀시대의 영문약자인 GG가 결합한 형태로 멤버들의 여러 조합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매력을 선보여 글로벌 팬들을 매료시켰다는 의미다.

싱글 앨범 '뽀글니(Lil' Touch)'로 데뷔했으며 미국 빌보드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집중 조명되는 등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에는 데뷔 15주년을 맞아 정규 7집 '포에버 원(FOREVER 1)'으로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해 최장수 걸그룹의 역사를 새로 썼다.

윤아는 배우 활동을 꾸준히 했다. 2017년 방영했던 MBC 드라마 '9회말 20아웃'로 데뷔해 인터넷소설 작가인 고교 3학년 신주영 역을 맡았다. 출판사에서 알게 된 난희(수에 분)를 통해 오랫동안 좋아했던 야구선수 정주(이태성 분)를 만난 뒤 난희

의 연적으로 돌변해 불꽃튀는 사랑 경쟁을 벌이는 딸기 출판사 연기를 선보여 눈도장을 찍었다.

이듬해에는 KBS1 드라마 '너는 내 운명'에서 장재혁 역을 맡아 희망을 잃지 않는 당찬 캐릭터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내 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 '너는 내 운명' '신데렐라 맨' '사랑비' 'THE K2' '왕은 사랑한다' '허쉬' '빅마우스' 등과 중국 드라마 '무신조자룡', 영화 '공조' '엑시트' '해피 뉴 이어' '공조2: 인터내셔널'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한편 윤아는 6월 첫 방송되는 JTBC 새 드라마 '킹더랜드'로 돌아온다. '킹더랜드'는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이준호 분)과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 퀸 천사랑(임윤아 분)이 호텔리어들의 꿈인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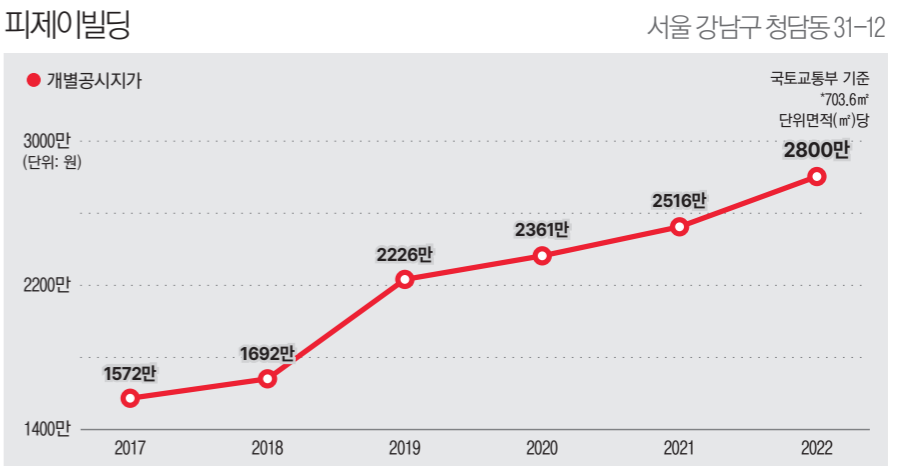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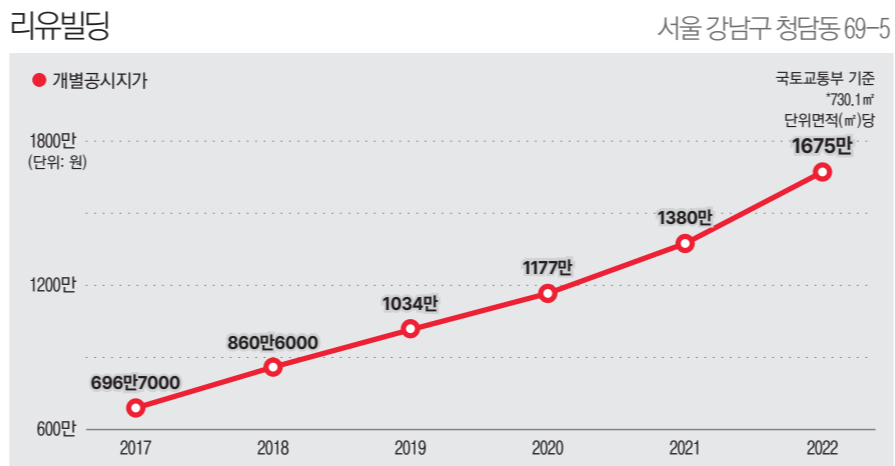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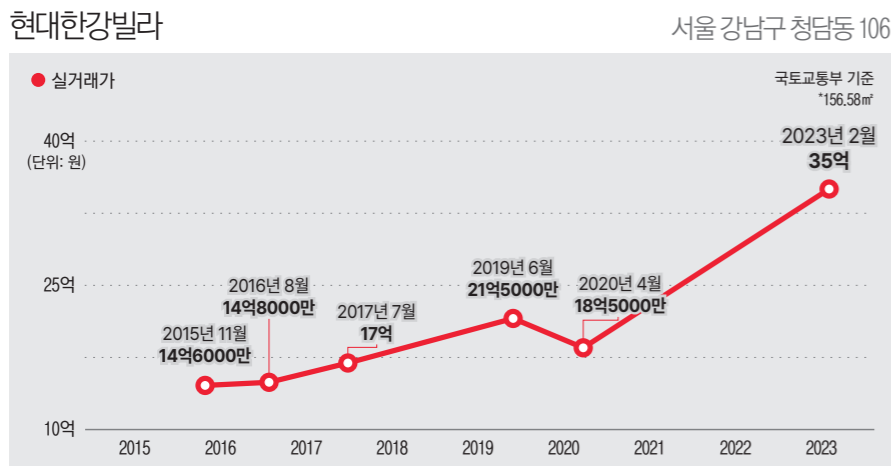
가수 윤아

뉴스

임윤아가 맡은 천사랑은 아름다운 미소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호텔리어이자 킹호텔의 명실상부 친절사원으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을 준 킹호텔의 일원이 되어 고객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은 진심을 담아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선사한다.

제작진은 "윤아는 드라마 속 천사랑이 현실에 튀어나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호텔 명실상부 친절사원으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을 준 킹호텔의 일원이 되어 고객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은 진심을 담아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선사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서창석 전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전 서울대학교병원장은 경기도를 나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1996년부터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로 재임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다. 산부인과 중앙 복강경 수술의 권위자로 불리는 서전 병원장은 몸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단일 절개 복강경 수술을 1000건 이상 집도한 전문가다. 2014년 9월부터 1년 6개월간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로 근무한 뒤 서울대병원장 선거에 도전해 제17대 병원장으로 뽑혔다. 병원장 재임 중 권역응급센터

터 개소와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이끌었으며 평창올림픽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했다. 또 서울대병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외래를 성공적으로 개원했다.



유호정 현배우

유호정은 서울예대 영화과 재학 시절 초콜릿 등 CF모델을 하다가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 '궁'의 황인로 PD에게 발탁돼 MBC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1991년 데뷔했다. 1992년 MBC 청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에서 주인공을 맡아 새침데기 캐릭터를 잘 소화하며 긴 무명 기간을 거치지 않고 스타가 됐다. 이후 30여 년간 '바람은 불어도' '이웃집 여자' '거짓말' '태양이 이제야' '로즈 마리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웃집 웬수' '풍문으로 들었소'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다. 특히 2010년 SBS 연기대상에서 '이웃집 웬수'로 손현주와 연속극부분 최우수연기상을

공동 수상했다. 손현주와 부부로 출연한 유호정은 윤지영 역을 열연해 이혼한 여성의 심리를 현실적으로 그려냈고 배우 신성록과 연하남의 사랑을 설레게 표현해 여성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김은숙 현드라마작가

김은숙은 많은 드라마를 히트시킨 스타 작가다. 어려운 형편으로 고교 졸업 후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가구 공장에서 경리 일을 시작했다. 경리로 모은 돈 2000만 원으로 25세 때에 서울예술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연극협회에서 연극 창작극 본들을 요약해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글쓰기에 흥미를 느껴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후 윤하림 화담담픽처스 대표가 김 작가를 발굴해 드라마 '극본 집필을 맡겼다. 강은정 작가와 공동 집필한 데뷔작 SBS 드라마 '태양의 남쪽' 이외에도 '파리의 연인' '프라하의 연인' '연인' 등 연인 시리즈를 성공시키며 스타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은애'

'시티홀'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더킹: 영원의 군주' 등 집필한 작품들을 줄줄이 성공시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작가로 거듭났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수서~광주 복선전철 국회 토론회 “조기 착공” 한목소리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19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수서~광주 노선이 있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중부내륙축과 관계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주최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단순히 서울 동남부의 거점역인 수서역과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이 아니라 서울과 충북~경북~경남을 거쳐 거제까지 연결하는 국가의 새로운 중단 철도망 형성의 시발점이 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장래 중부내륙선-경강선-강릉선-중앙선으로 운행 확장이 가능해 철도서비스에서 소외된 내륙권의 국토균형발전을 한발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경기도 내 교통편의 증진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9일 개최됐다. 충청북도

이다”며 철도망의 연결을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중부내륙선이 대한민국 대표 중단 노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신속히 완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남 도 교통철도과장은 “중부내륙선의 최종 목적인 서울과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은 2021년 이미 개통한 중부내륙선 1단계(이천~충주)와 2024년 개통할 2단계(충주~문경) 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은 “충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부내륙연계개발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소멸위기의 지방도시에서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는 노선이다”고 거듭 조기 개통을 촉구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서울까지 환승없이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울산,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 성과 ‘톡톡’

울산광역시

울산시가 올해부터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운영한 결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경관, 교통 등 각각 심의 받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12건을 심의 완료했다. 심의결과 12건 중 10건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심의 통과율은 83%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심의를 본격적으로 적용된 울주군 망양2지구 공동주택 등 2건의 경우 최초 심의 접수부터 3개월 안에 건축심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의, 교통심의, 경관심의가 모두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전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총 2회에 걸쳐 사전검토를 실시해 총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했으며 심의 개최 전까지 133건의 보완을 완료해 심의 당일에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했다. 기존의 개별 심의의 경우 해당 분야만 검토해 주변 현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과 후속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나올 경

우 앞의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웠으나 통합심의의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해졌다. 실제 신정동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봉월로 이면 도로에 아파트 출입구가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나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어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에 따라 아파트 출입구를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밖에도 단지 내 시각적 개방감 확보, 보행동선을 고려한 공공공지 계획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로 주거의 쾌적성 향상은 물론 공공성 확보에도 주요한 점을 둔 심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보행자 및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내 설계사무소 등에 심의의 기준과 방향 등을 안내해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